

옷깃과 옷섶의 形態變化에 대한 研究

—朝鮮時代의 저고리와 袍—

白 錦 鉉

1. 序 論	3. 朝鮮王朝時代의 옷깃과 옷섶
2. 옷깃과 옷섶의 起源	4. 結 論

I. 序 論

옷의 옷깃과 옷섶 그리고 여밈은 服飾의 系統 區別의 指標가 되며 服飾研究에 重要한 資料가 된다. 本 研究에서는 저고리와 直領袍의 깃과 섶의 形態變化를 朝鮮時代를 中心으로 관찰 整理하며 最古의 遺物인 1400年代의 옷에서 1900年代 까지의 옷을 연구자료로 하였다.

研究內容은 첫째, 옷깃과 옷섶의 모양과 길이와 넓이 둘째, 옷깃과 옷섶이 달린 位置를 관찰하여 朝鮮時代의 저고리와 袍의 깃과 섶의 形態變化 過程을 밝히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研究方法은 遺物의 실측 調査 및 관찰 方法과 重要民俗資料 調査報告書와 文獻研究方法으로 使用된 資料는 南陽洪氏 遺衣外 21人의 遺衣이며, 年代는 1400年에서 1900年代 까지 이다.

관찰 方法은 저고리와 袍의 옷깃과 옷섶의 모양 및 크기와 달린 位置를 실측 整理하였다.

옷깃의 모양에 따른 명칭은 목판깃, 칼깃, 목판칼깃, 목판당코깃, 둥근목판깃으로 名하였으며 그 形態의 基準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도 1>

- ① 목판깃; 겹깃과 안깃이 모두 목판 形態
- ② 칼깃; 겹깃과 안깃이 모두 칼깃 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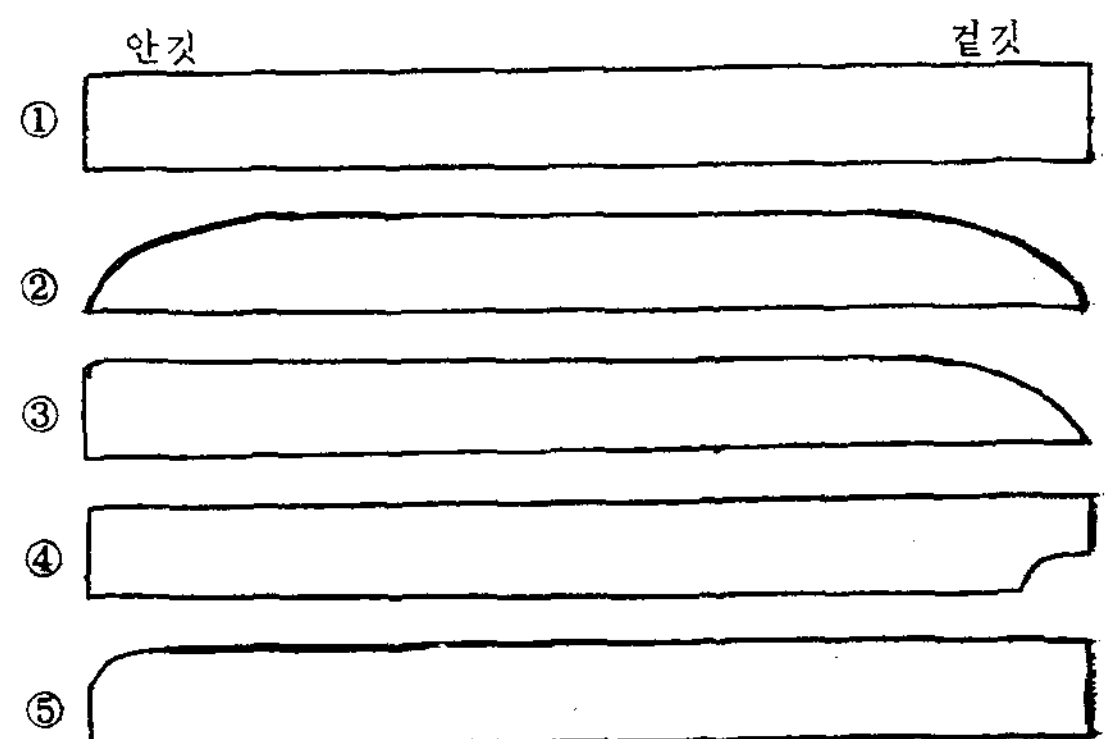
- ③ 목판칼깃; 겹깃은 칼깃, 안깃은 목판 形態
- ④ 목판당코깃; 겹깃은 당코, 안깃은 목판 形態
- ⑤ 둥근목판깃; 겹깃은 목판, 안깃은 궁둥이가 둥글려진 形態

그리고 겹깃의 形態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옷깃의 명칭 앞에 겹깃의 경우임을 밝혔으며 옷깃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옷깃은 쌍깃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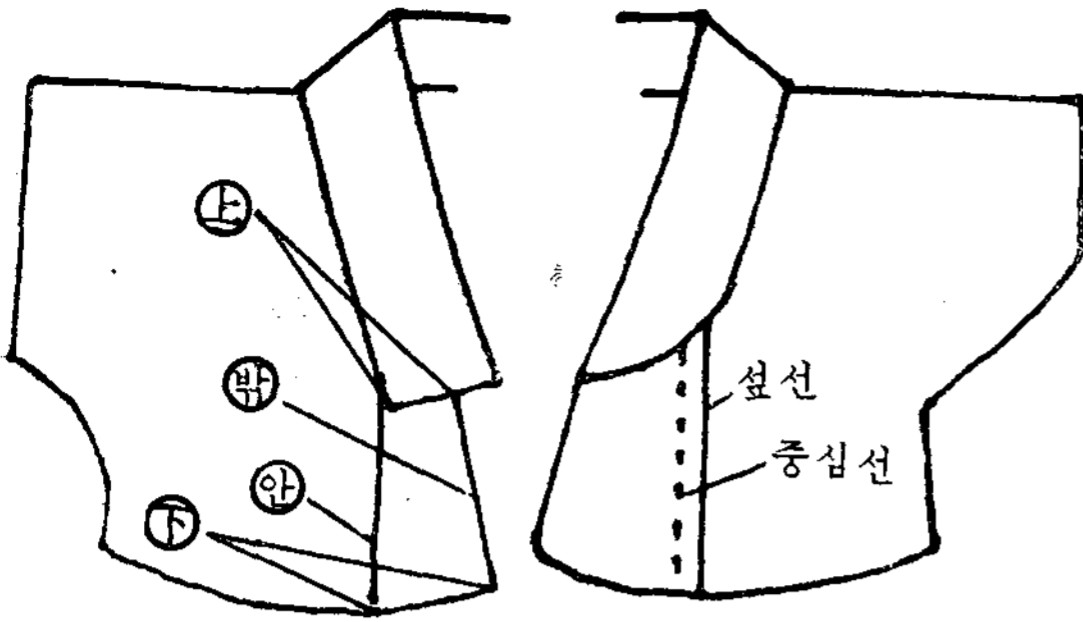
옷섶의 모양은 쌍섶의 경우만을 표시하였다.

옷깃의 크기는 전체 깃길기와 넓이를 측정했으며 안깃과 겹깃의 길이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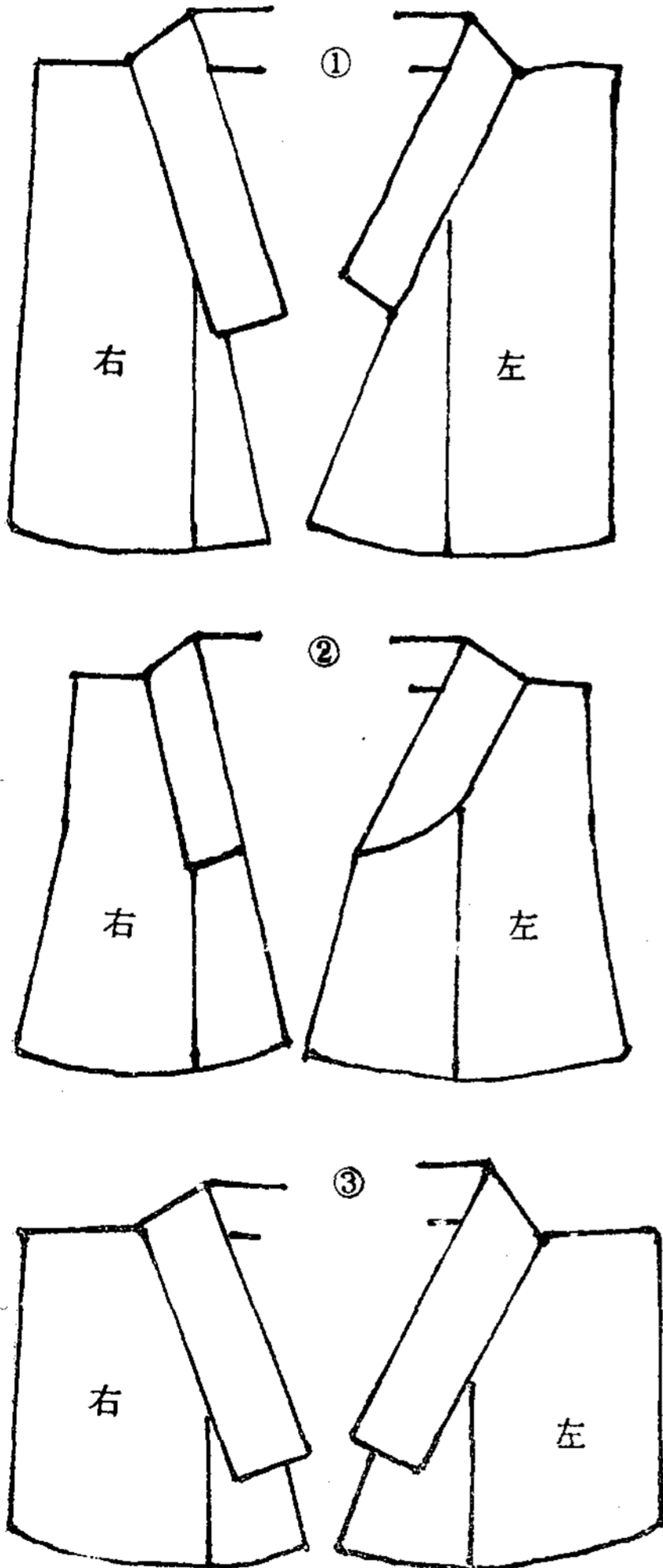
옷섶의 크기는 안섶과 겹섶으로 나누어 옷섶의 넓이와 길이를 <도 2>와 같이 넓이는 上·下



<도 1> 옷깃의 명칭



<도 2> 옷깃 크기의 측정 부위



<도 3> 옷깃과 옷깃의 달림

로 길이는 안과밖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고 중심선은 점선으로 표시 하였다.

깃선과 안깃의 크기 비교는 上·下단의 넓이와 안길이를 비교하여 크고 작음을 구별하였다.

옷깃과 옷깃이 달린 位置의 구분은 옷깃의 바깥선을 基準으로 하여 옷깃이

- ① 옷깃이 밖으로 나아간 것
- ② 옷깃이 안으로 들어간 것
- ③ 옷깃의 일부만이 들어간 것

으로 구분했고 깃선과 中心선과의 관계를 관찰 하였다.

衣服의 年代 區分은 重要民俗資料 調査報告書에 의한것이며 發掘된 資料가 몇몇 사람의 옷을 調査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이 資料가 그 時代를 代表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추세를 예상할 수 있으며 앞으로 많은 資料가 發掘 된다면 變化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II. 옷깃과 옷깃의 起源

옷깃의 意味는 衣服의 목둘레에 해당되는 부분의 명칭으로 洋服의 collar에 해당한다. 즉 衣服의 목을 둘러싸서 앞에서 교차되는 부분과 목의 뒷부분을 뜻한다. 옷깃의 뜻을 나타내는 漢字 語를 들면 衿·襟·領 등이 있으며 옷깃의 意味를 세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목둘레 부분의 位置를 나타내며 둘째, 衣服의 목[首]둘레에 선을 두른다는 뜻. 셋째, 다른 천을 덧붙인다. 즉 붙인것을 意味한다.

六世紀代의 「顏氏家訓」에 「領下連于衿」¹⁾이라 하며 즉 목의 둘레만이 領이고 領에 이어지는 앞의 옷깃을 衿이라 表現했다. 領은 本來 項·頸를 意味하는 文字에서 바뀌어 衣服의 목둘레를 싸는 부분의 뜻으로 轉用되어졌다. 또 襟은 本來 末端의 주변에 선을 두른다[緣]라는 意味가 있으며 緊縛한다는 뜻으로 쓰여졌다. 領과 襟을 綜合해서 쓰는 경우는 목둘레를 싸는 領과 그 밑으로 이어지는 앞모음의 부분인 襟을 포함한 옷깃전체를 表現한 것이라 한다.

衣服의 構成機能上으로 본 옷깃의 發生 原因은 첫째가 衣服의 補強과 邊緣保護의 目的으로 衣服의 가장자리나 천의 짜임이 헤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緣을 꼬매 넣는다든지 다른 천조각을 부쳐서 만든다는 一次的인 意味가 있으나 나중에는 따로 천을 붙여서 목을 넓게하거나 수를 놓

1)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古代編)(東京, 文化出版局, 1979), pp.79~84.

아 문양을 넣어 儀式用으로 配色을 研究하여 第2의 目的으로 變化해 가면서 더욱 發展하게 되었다. 둘째는 防寒의 手段으로 身體를 保護하는 目的으로 衣服의 材料가 毛皮나 皮革인 遊牧社會에서는 1次的으로 防寒의 目的으로 목둘레를 추위로 부터 保護하기 위하여 목도리의 역할을 하기 위한 옷깃의 發生이 생각된다. 따뜻한 날은 그것을 접어서 입고 추워지면 옷깃을 세워 防寒의 역할이 옷깃 發生原因이 되었다. 이 옷깃의 양식은 本來 防寒의 目的이므로 폭이 넓고 목둘레의 形態는 盤領인 것이 합리적이었으며 처음에는 접었을 뿐이나 나중에는 따로 붙이게 되었다.

이와같은 기마민족의 풍속인 胡服의 양식이 農耕社會에 들어오면서 衣服의 材料가 布로 바뀌면서 옷깃의 形態 研究는 계속 되었으나 一次的인 防寒의 目的은 약해지고 胡服의 活動性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朝鮮時代의 저고리와 袍의 깃은 목둘레에 옷감으로 옷깃을 따로 재단하여 댄 옷깃이며 崔世珍의 「훈몽자회」의 服飾篇에 나타난 옷깃의 어휘를 보면 領(옷깃령, 목령), 襟(옷깃극), 襟(옷깃금 또는 기슭금), 衿(기슭임 衣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옷섶을 나타내는 어휘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1527년에 쓰여진 「훈몽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시대 이후에 옷섶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으로 생각되며 한자어의 衿이 옷섶을 意味하는 부분의 명칭이 아닌가 한다.

Ⅲ. 朝鮮王朝 時代의 옷깃과 옷섶

1. 저고리

겉깃의 모양은 1400~1500년대 후반까지는 목판깃의 形態이며 1590년대에 칼깃의 形態가 등장하면서 목판깃 칼깃 목판당코깃이 混用되었으며 1600년대 후반까지는 목판깃과 목판당코깃이 主를 이루고 있다. 다음 1730년대에서 1880년대의 옷깃은 목판당코깃이 主를 이루면서 깃궁둥이가 약간 둥글려져 있으며 1890년대의 옷깃은 당코깃으로서 깃궁둥이가 둥글려져 오늘날의 겉깃궁둥이의 形態와 비슷하다.

안깃의 모양은 모두 목판깃을 이루고 있다.

옷깃 넓이는 1400년경 부터 1690년경 까지 근 300년간 넓이의 변화는 별로 없었으며 10cm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1730년경 부터는 10cm 이하로 좁아지면서 9.5cm를 나타냈고 1800년대에는 6.6cm에서 1880년대에는 6cm로 좁아졌으며 1900년대에는 3.5cm로 좁아졌다.

옷깃 길이는 1550년대 부터 1900년대 까지 길이의 變化는 짧아지는 傾向이다. 1560년~1640년까지는 90cm에서 95cm의 범위에 있으며 1680년~1730년 까지의 길이는 85cm 內外로 앞의 時代보다 짧아졌다. 1800년~1880년까지는 57cm로 더욱 짧아졌고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50cm로 매우 짧아졌다.

겉깃과 안깃의 길이는 전체 깃길이의 短小化 현상에 따라 자연히 그 길이가 짧아졌으며 전체 깃길이에 대한 백분율도 작아졌다. 그리고 안깃 길이와 겉깃길이와의 비례관계의 變化를 가져왔다. 1560년~1620년 사이에서는 겉깃은 전체깃의 41% 안깃은 39.6%로 겉깃이 안깃보다 길었으며 1640년~1800년 사이에서는 겉깃이 38%이고 안깃이 41%의 비율로 안깃이 겉깃보다 길어졌으며 1880년~1900년대에서는 겉깃이 34.5% 안깃이 41.5%의 비율로 안깃이 겉깃보다 많이 길어졌다. 이렇게 안깃길이가 겉깃길이 보다 긴 현상이 지금의 저고리의 깃형태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 된다.

고대의 길이는 1550년대에는 14cm로 짧은 편이며 1560년~1730년대 까지는 근 170여년 동안 고대길이의 변화는 별로 없어 19cm정도를 나타냈으며 1800년대에 들어와서 13.7cm로 크게 줄어들고 1900년대 저고리의 고대는 13cm로 작아졌다.

겉깃과 겉섶이 달린 위치는 1400년~1580년대는 옷깃이 옷섶안에서 옷섶 밖으로 나아가 달린 과정을 거쳐 옷깃이 옷섶 밖으로 나아가 달렸다. 1590~1660년대까지는 다시 옷섶 밖으로 나아가 옷깃이 달린 경우와 옷섶 안으로 달린 경우, 그리고 옷깃넓이 일부가 옷섶 안에 들어가 달려진 세가지 形態의 옷깃달림이 共存했다. 이것이 1800년대에 이르러서 옷깃넓이 일부가 옷섶 안으로 들어가 달린 경우가 주를 이루며 1900년대에 이

르러서는 오늘날의 저고리와 같이 옷섶 안으로 들어가 달리는 옷깃 달림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

안깃과 안섶이 달림의 위치는 1550年~1640年代 까지 옷깃이 옷섶 밖으로 나간 경우와 반대로 들어온 경우 또는 일부만이 들어온 경우의 세가지 옷깃달림의 形態가 混用되었는데 그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 1960年代에는 옷깃이 옷섶 밖으로 나아가 있는 저고리가 主를 이루며 1880年代 清衍君主 저고리의 안섶이 달린 位置도 이와같이 안깃이 안섶 밖으로 나아가 달려 있어서 이 形態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옷섶의 크기는 겹섶과 안섶 모두 넓이면에서는 下단의 넓이가 넓었고 안깃이가 길었다.

時代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겹섶 하단의 넓이는 1550~1560年代에는 13cm이며 1580年~1590年代에는 27cm로 매우 넓어졌다. 1600年代 初期부터 1730年代까지는 19cm로 좁아졌다. 1800年代初에는 7.2cm로 다시 좁아졌고 1800年代末에는 6cm로 즉 여밈부분이 적어졌다.

안섶의 하단의 넓이는 겹섶의 넓이와 비례되었는데 1560年代에는 8.6cm이며 1580年~1590

<표 1> 저고리 겹깃의 모양

	年 代	목판깃	칼 깃	袍코깃
겹	1400年代	1	.	.
	1550年代	1	.	.
	1560年代	4	.	.
	1580年代	23	.	.
	1590年代	1	2	.
	1600年代	4	4	4
	1620年代	1	.	2
	1640年代	3	.	1
	1680年代		.	1
	1690年代	2	.	11
깃	1730年代	.	.	1
	1800年代	.	.	14
	1880年代	.	.	1
	1890年代	.	.	1
	1900年代	.	.	1

<표 2> 저고리 옷깃 모양의 변화

번호	被葬者	年 代	(안깃) 옷깃의 모양 (겹깃)
1	南陽洪氏	1400-1450	
2	安東金氏	1550	
3	順天金氏	1560	
4	廣州李氏	1580	
5	金德齡軍將 長興任氏	1590	
6	朴將軍	1600	
7	光海君	1620	
8	求禮係氏	1640	
9	李端夏氏 夫人	1680	
10	金德遠公 夫人	1690	
11	完山崔氏	1730	
12	清衍君主	1800	
13	梁憲洙 將軍夫人	1880	
14	閔氏	1890	
15	金氏	1900	

年代에는 18cm로 넓어졌고, 1600年代 初期에서 1720年代까지는 10cm로 좁아졌고, 1800年경에는 5.1cm로 1800年代末에는 2.5cm로 매우 작아지면서 겹섶이 작아지는 현상과 같이 안섶도 작아졌다.

길이도 넓이와 같이 1590年代에는 다소 길이가 길어졌다가 그 이후부터 1640年代까지는 짧아졌으며 저고리 길이도 짧아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추세는 계속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2. 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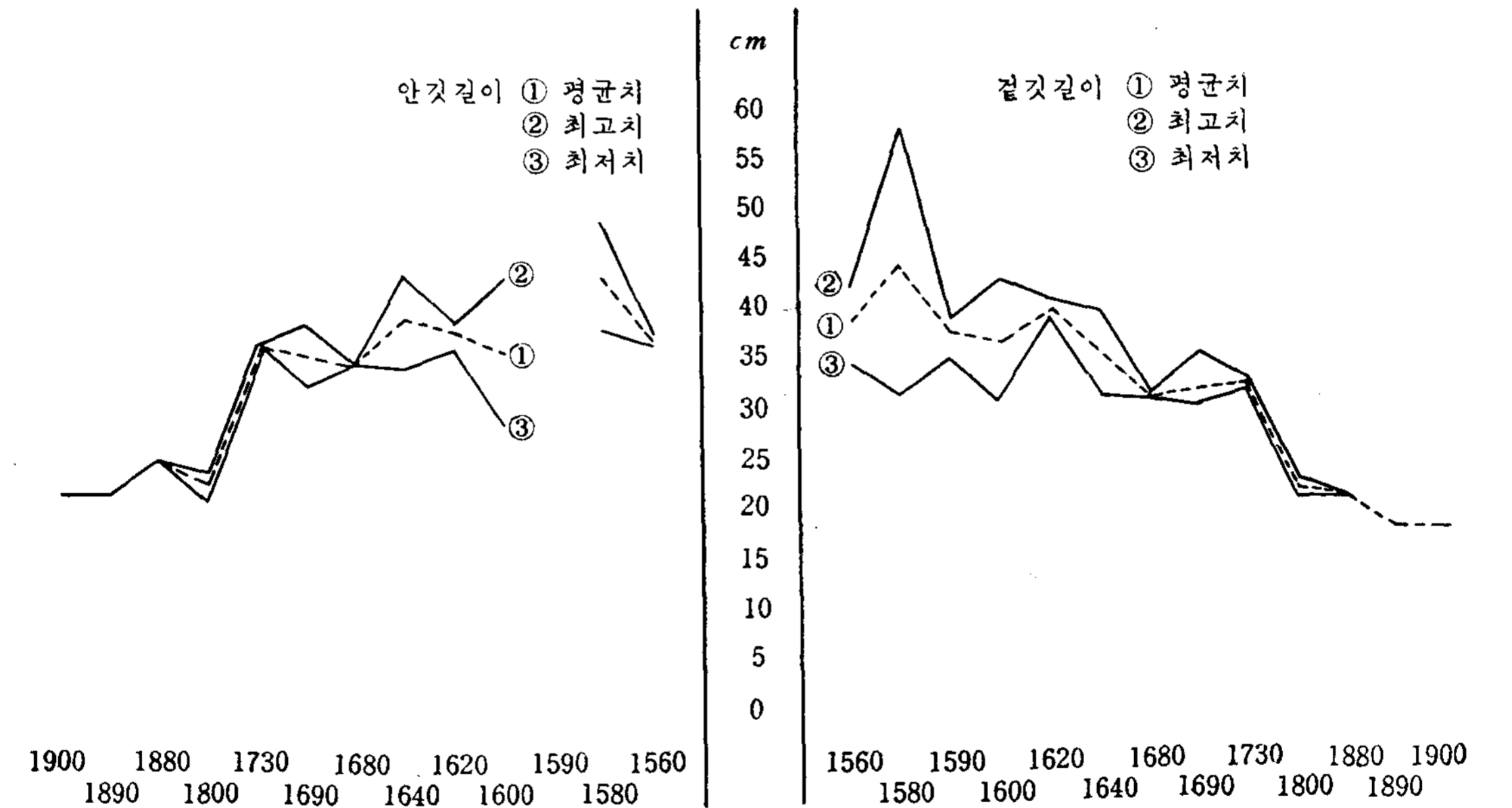
옷깃의 모양은 <표 7>에서와 같이 겹깃의 모양은 칼깃이 主를 이루고 있으며 목판깃의 形態

<표 3> 저 고 리 깃 의 크 기

년 대	인 물	옷깃길이	결깃길이(%)	안깃길이(%)	옷깃넓이	고대길이
1550년대	안 동 김 씨	.	.	.	10.5	14
1560년대	순 천 김 씨	91.5	38 (41%)	36 (39%)	11~12	18
1580년대	광 주 이 씨	85, 95, 107.5	44 (41%)	42 (44%)	10.8	19
1590년대	김 덕 영 장 군	.	38.5	.	10.4	19.5
1590년대	장 흥 임 씨	.	36	.	8~11	.
1600년대	박 장 군	90	36 (40%)	35 (39%)	10	18.9
1620년대	광 해 군	86.5~94	39 (42%)	37 (41%)	10~10.5	18
1640년대	구 례 손 씨	93	35 (38%)	38.5(42%)	10.4	19
1680년대	이 단 하	83	31 (37%)	34 (41%)	10	18
1690년대	김 덕 원	86	32 (38%)	35 (40%)	10	19
1730년대	완 산 최 씨	86.5	32.5(38.5%)	36 (42%)	9.5	18
1800년대	청 연 군 주	56	20.7(37%)	21.6(39%)	6.6	13.8
1880년대	양 장 군 부 인	57.8	20.3(35%)	23 (42%)	6	13.5
1990년대	민 씨 저 고 리	50	17 (34%)	21 (42%)	3.5	
1900년대	김 씨 저 고 리	50.5	17 (34%)	20.5(41%)	3.5	13

<수치는 평균치, (%)는 옷깃길이에 대한 백분율>

<표 4> 저 고 리 의 깃



도 混用되고 있다.

쌍깃의 形態는 1560年代의 天翼에서 나타나 있고 1590年代의 長興任氏의 袍에서 쌍깃의 흔적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天翼의 결깃의 모양은 1400年代~1690年代의 實物이 모두 칼깃을 이루고 있으며 擎衣의 實物도 모두 칼깃을 이루고 있다.

결깃의 모양이 목판깃과 칼깃의 形態가 混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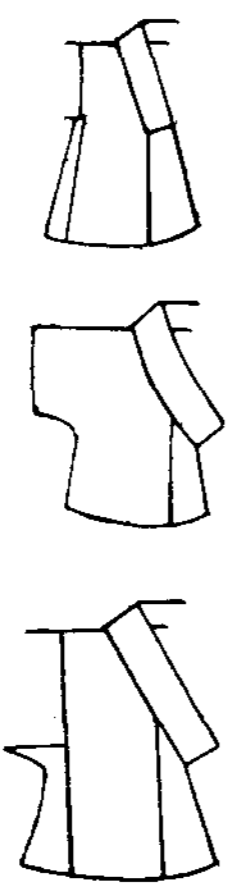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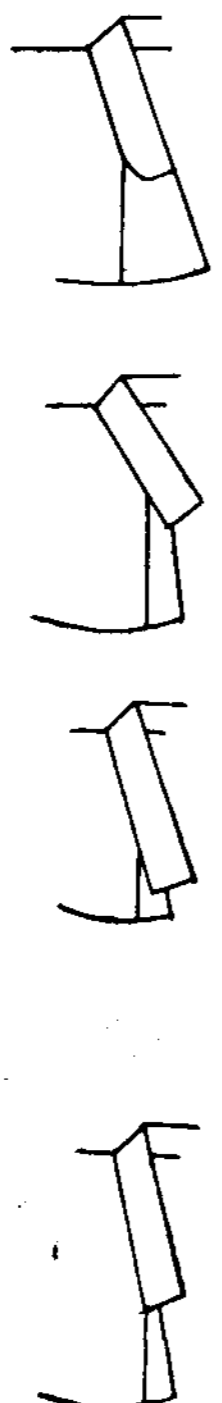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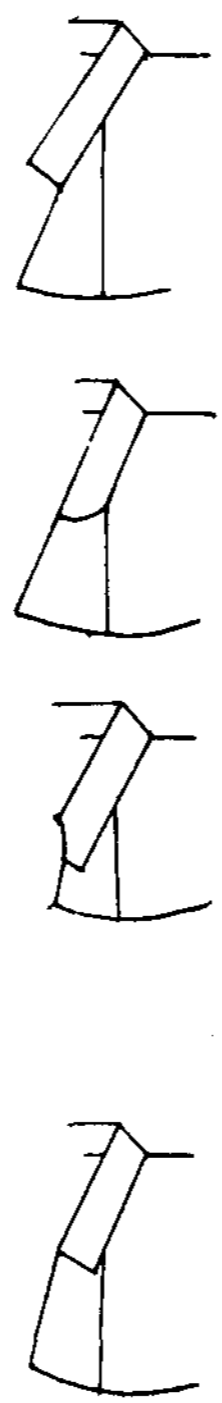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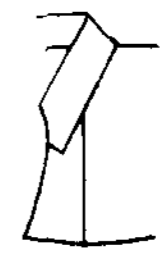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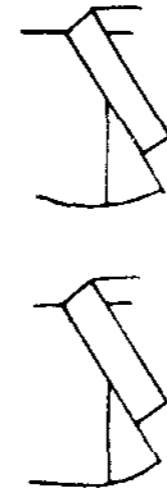







되어 오면서 1700年代에 와서는 결깃의 모양이 1400年~1600年代에 나타난 결깃에 비해서 결깃궁둥이가 둥글게 곡선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어지면서 지금의 결깃모양과 같이 목판형의 깃이면서 결깃궁둥이가 둥근 形態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안깃의 모양은 대부분이 목판깃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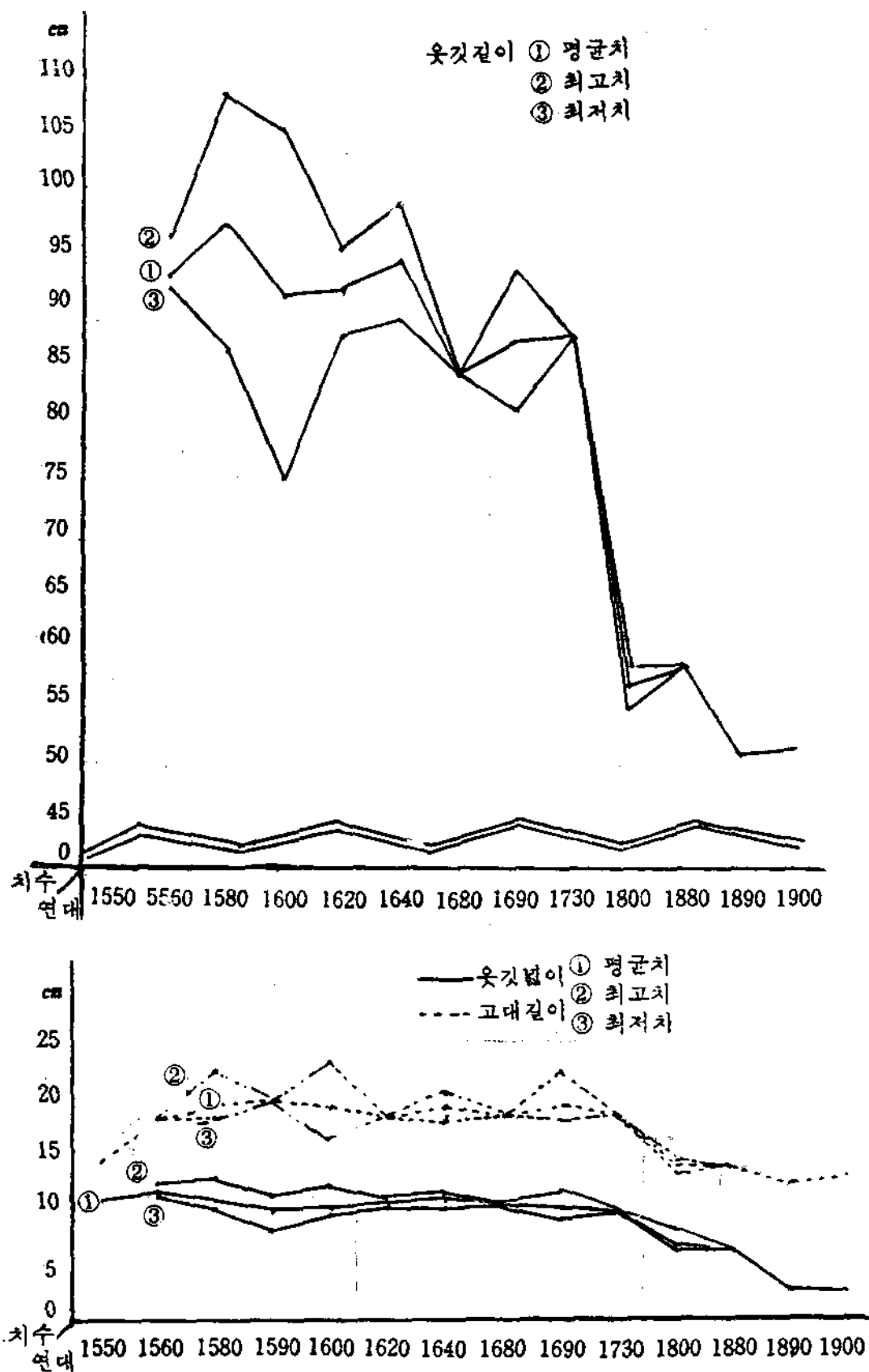
<도 4> 저고리의 형태

년대	입은사람	저고리 형태(안)	갓수	저고리 형태(겉)
1400	南陽洪氏 (저고리 1점)		1	
1550	安東金氏 (저고리 1점)		1	
1560	順天金氏 (저고리 4점)		1	
			1	
			2	
1580	廣州李氏 (저고리 23점)		14	
			1	
			4	

		1		
		1		
		2		
1590	金德齡將軍 (저고리 1점)		1	
1590	長興任氏 (저고리 2점)		1	
			1	
1600	朴將軍 (저고리 12점)		2	
			1	
			2	
			1	

			3 1 2					
1620	光海君 (저고리 3점)		2 1					
1640	求禮孫氏 (저고리 4점)		1 1 1 1					
1680	李端夏氏 夫人 (저고리 1점)						1	
1690	金德遠公 과 夫人 (저고리 19점)						15 2 2	
1730	完山崔氏 (저고리 1점)						1	
1800	清衍郡主 (저고리 14점)						14	
1880	梁將軍夫 人 (저고리 1점)						1	
1890	閔 氏 (저고리 1점)							
1900	金 氏 (저고리 1점)							

<표 5> 저고리의 깃



1560年代 天翼의 경우는 쌍깃으로써 목판깃과 목판당코깃을 이루며 이 시대 이후 1700年代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목판깃을 이루고 있으며 1500年代末까지는 목판깃의 形態와 칼깃의 形態가 混用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1700年代까지는 모두 목판깃의 形態를 지니고 있다.

옷깃의 넓이는 1400年代에는 15cm이며 1580年부터는 좁아지기 시작하여 1670年代까지는 큰 차이가 없이 10cm 内外였으며 1680年~1700年 사이에는 다시 넓어져서 12cm를 나타냈다.

天翼의 옷깃의 넓이는 1400年代에는 15.5cm 1690年代에서는 11.4cm로 좁아졌다.

고대길이는 1560年~1700年代까지는 별 차이 없이 20cm 内外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것을 <표 6>의 크기와 비교해 보면 1700年代에서 1900年代까지의 사이에 資料는 없으나 모든 것이 짧아지는 경향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

<표 6> 창덕궁 소장품(1900年代)

치수	자료	천익 (2점)	창의청 (6점)	청삼 (7점)	두루마기 (25점)	직령포 (33점)
전체깃길이		93	81	88.1	84	84.5
겉깃길이		35	27	30.5	30	30.6
안깃길이		41	36	36	36	36.4
고대길이		17	18	21.6	17.8	17.5
깃 넓이		11	8.8	8.9	7.7	8.5

<수치는 창덕궁 소장품의 크기의 평균치임.>

다.

전체깃길이는 1560年代의 天翼의 길이가 146.5 cm로 매우 길며 1590~1600年代까지는 1560年代의 옷깃길이보다는 짧아지고 있으면서 1660年代까지 계속 짧아지고 있다. 1670年~1690年代에는 다시 옷깃길이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1700年代에는 다시 작아졌다. 이 현상은 계속되어 1900年代에 이르러서는 1700年代에 비해서 매우 짧아졌다.

겉깃과 안깃의 길이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1560年~1700年代까지의 겉깃길이와 안깃길이와의 비율은 겉깃이 안깃보다 긴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옷의 여밈이 매우 깊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00年代의 袍에서는 겉깃과 안깃의 길이가 1700年代의 袍의 길이에 비해서는 짧아졌으며 안깃길이가 겉깃길이 보다 모두 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겉깃과 겉깃의 달림의 위치는 1400年代에서 1700年代에 이르면서 옷깃이 옷깃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경우와 옷깃넓이의 일부가 옷깃 밖으로 나아가 달린 두가지 경우를 반복하면서 1700年代에 이르러서는 옷깃이 옷깃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달려져 있다.

天翼의 경우는 이 시대를 통하여 겉깃과 겉깃의 달림은 옷깃이 옷깃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달려져 있다.

안깃과 안깃의 달림의 위치는 1580年~1600年에서는 옷깃이 옷깃 안으로 들어가 달린 경우가 주로 이루어지며 1600年代에는 옷깃넓이의 일부가 옷깃 밖으로 나온 경우의 袍를 2점 볼 수 있었다. 1640年代와 1680年代에서는 옷깃이 옷깃 밖으로 나간 경우와 들어와 있는 경우가 混用되고 있으며 1700年代에는 옷깃이 옷깃밖으로 나아가 달려졌다.

<표 7> 袍의 겹깃 모양

	연 대	목판깃	칼 깃	당코깃
겹	1400	1	4	.
	1560	.	2	.
	1580	7	5	.
	1590	1	5	.
	1600	3	14	.
	1620	.	.	1
	1640	1	1	.
	1660	1	.	.
깃	1670	1	2	.
	1680	.	.	1
	1690	8	13	.
	1700	.	10	.

天翼의 안깃과 안섶의 달림의 위치는 옷깃이 옷섶 밖으로 나온 경우만을 볼 수 있었으며 天翼의 안섶 크기는 매우 작거나 없는것이 특징이다.

겹섶과 안섶의 상단의 경우 1600年~1640年代 사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이 겹섶은 17cm 안섶은 6cm 정도의 넓이를 이루고 있으며 하단의 넓이는 쌍섶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넓이가 대체로 넓으며 1500年代 末期에는 그 넓이가 겹섶은 53cm 안섶은 41cm를 이루고 있으나 1600年~1640年에 이르러서는 그 넓이가 겹섶과 안섶이 모두 좁아져서 겹섶은 44cm 안섶은 28cm를 이룬다. 1660年~1680年에서는 다소 넓어져서 겹섶은 46cm를 나타냈으나 다시 1700年代에 와서는 31cm 정도로 좁아졌고 안섶은 1680年~1700年사이에서는 35cm로 1600年代 初期보다는 넓어졌다.

옷섶의 길이는 안섶 겹섶 모두 안길이가 길며 겹섶의 안길이는 1590년에는 1580年代 길이 보다는 길어지면서 1600年代까지는 길어지다가 다시 짧아지면서 1670年代에서는 1600年代 경우보다 2/5 정도가 짧아졌다.

안섶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짧아지고 있으며 天翼의 겹섶의 하단 넓이는 34cm를 이루고 있

<표 8> 袍의 옷깃 모양 변화

번호	被葬者	年 代	(안깃) 옷깃의 모양 (겹깃)
1	南陽洪氏	1400	
2	順天金氏	1560	
3	廣州李氏 東萊鄭氏	1580	
4	金 德 齡 軍 將 長興任氏	1590	
5	金 緯 朴 將 軍	1600	
6	光 海 君	1620	
7	求禮孫氏	1640	
8	文英夫人	1660	
9	興麗朴氏 洪克加氏	1670	
10	李端夏氏	1680	
11	金德遠公	1690	
12	洪鎮鍾氏	1700	

으나 안섶은 넓이와 길이면에서 매우 작거나 없는 것이 특징이다.

IV. 結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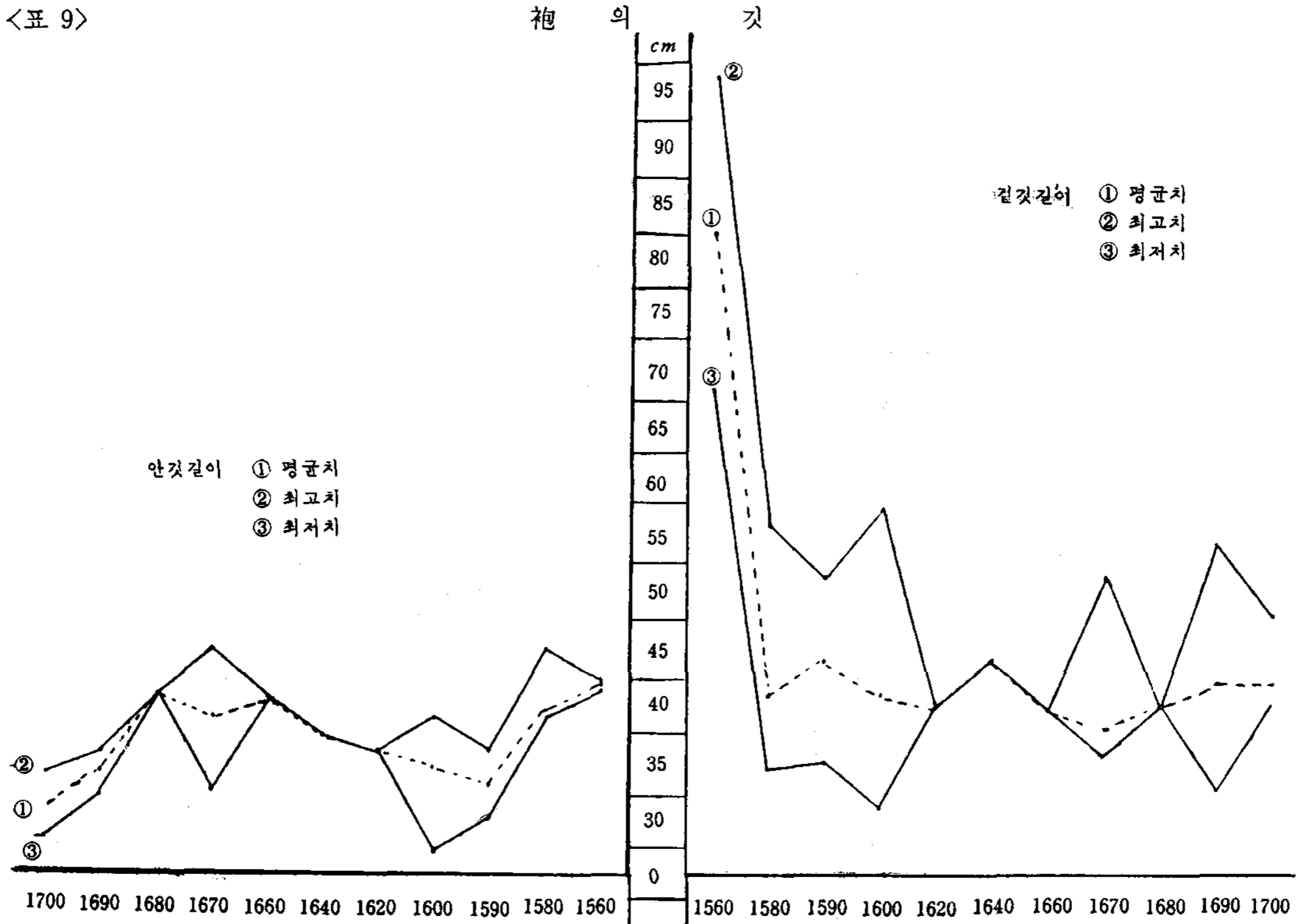
南陽洪氏 저고리 1점外 100점의 저고리와 南陽洪氏의 袍 4점外 袍 77점을 통하여 얻은 옷깃과 옷섶에 대한 結論은 다음과 같다.

1. 옷깃의 意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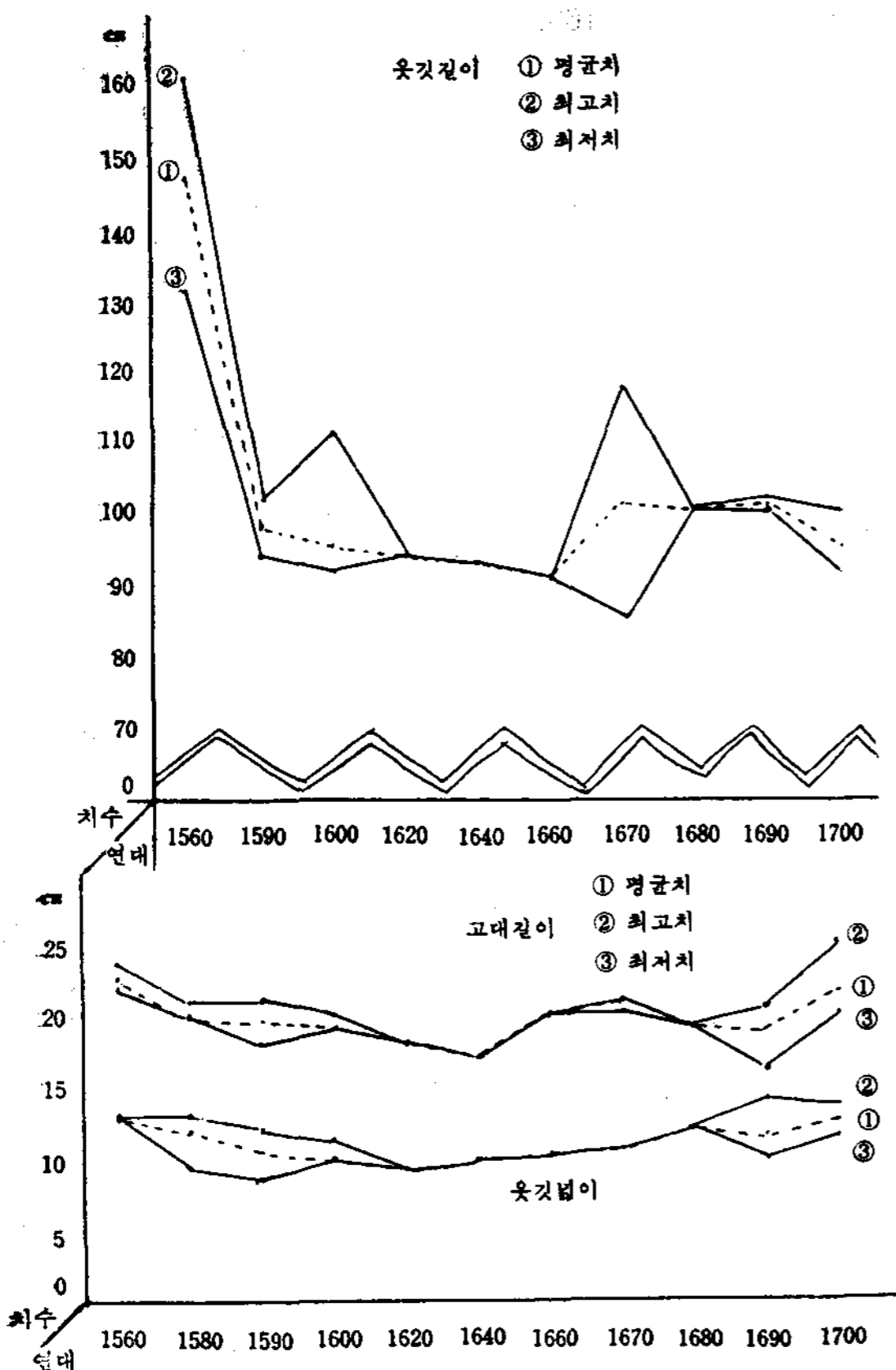
옷깃의 意味는 衣服의 목둘레에 해당되는 부분의 명칭으로 衣服의 목을 둘러싸서 앞에서 교차되는 부분과 목의 뒷부분을 뜻한다.

옷깃의 發生 原因을 衣服의 構成機能上으로 보면 衣服의 補強과 邊緣保護의 目的과 防寒의 手段으로 身體를 保護하는 目的에 의해서 發生되었다.

<표 9>



<표 10> 袍의 깃



朝鮮時代의 저고리와 袍의 깃은 목둘레에 옷감으로 옷깃을 따로 재단하여 댄 옷깃이며 옷깃의 意味를 지닌 어휘로는 領襟襟 衿을 볼 수 있다.

2. 저고리

깃의 모양은 목판깃이 主를 이루며 17C경에는 목판깃 칼깃 당코깃이 混用되었으며 以後에는 당코깃이 主를 이루면서 깃궁둥이가 둥글려 졌다.

안깃의 모양은 모두 목판깃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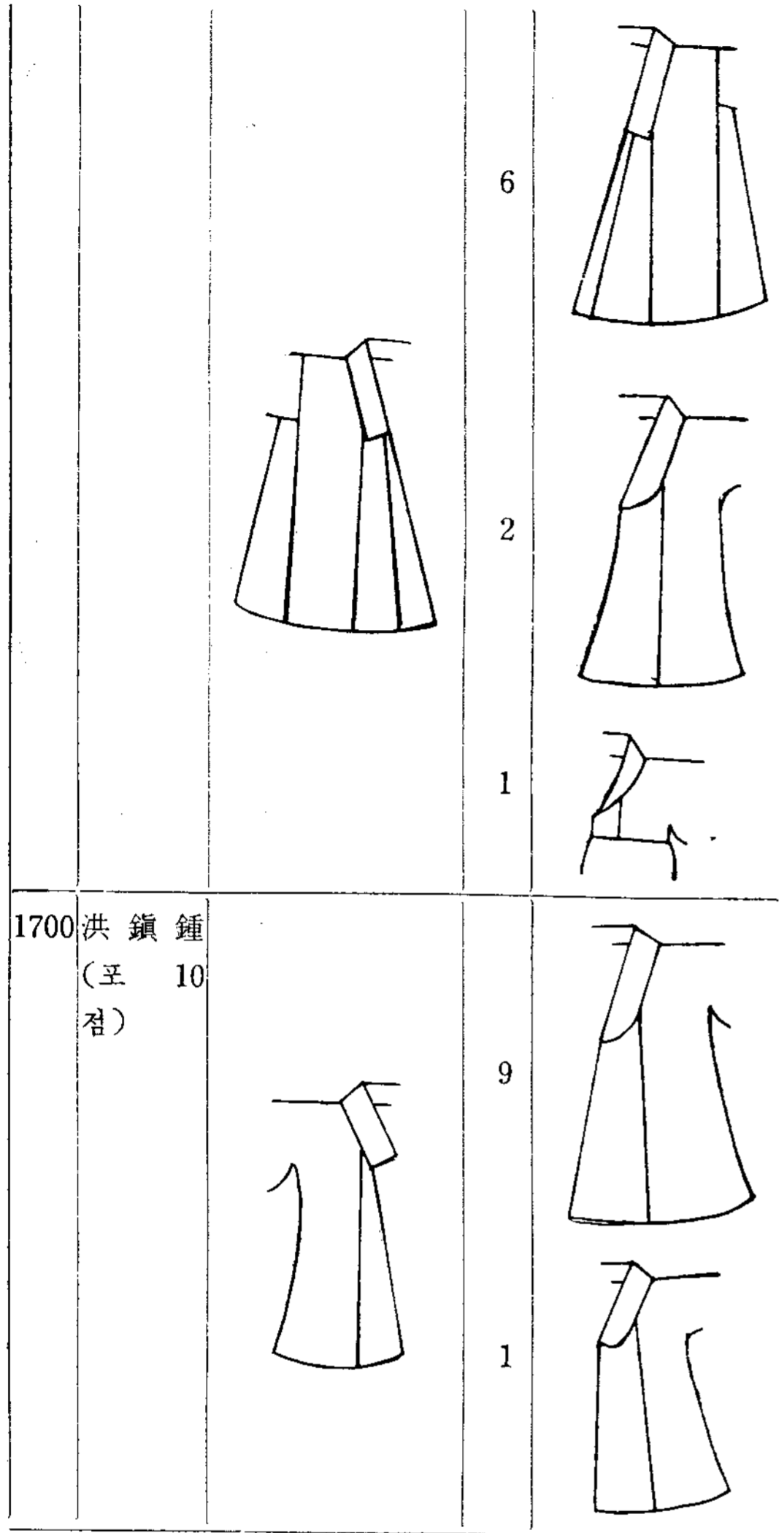
옷깃넓이와 옷깃길이 고대길이는 좁아지고 짧아지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안깃과 겹깃길이의 비율은 1560年~1620年사이에는 겹깃이 안깃보다 길었으나 그 後에는 지금의 저고리와 같이 안깃이 겹깃보다 길었다.

깃설이 달린 위치는 1400年代에는 옷깃이 옷설 밖으로 나아가 달렸으며 그 以後에는 옷깃이 옷설 안으로 또는 일부가 안으로 들어가 달린 경우를 반복하면서 1900年代에 와서는 오늘날의 겹깃달림과 같이 옷설 안으로 들어가 달렸다.

<도 5> 袍의 形態

년대	입은사람	袍의 형태 (안)	갓수	袍의 형태 (겉)
1400	南陽洪氏 (포 3점, 철릭 2 점)		2	
			1	
			2	
1560	順天金氏 (철릭 2 점)		2	
1580	廣州李氏 (포 10점 철릭 1 점)		2	
			2	
			2	
			4	
1580	東萊鄭氏 (포 1점)		1	
			1	
			1	
1590	金德齡 將軍 (포 4점 철릭 1점)		1	
			1	
			1	
			1	
			1	
			1	
1590	長興任氏 (포 1점 철릭 1 점)		1	

			1					1	
1600	金 緯 (포 7점 철릭 3 점)		7					1	
			3					1	
1600	朴 將軍 (포 7점)		3					1	
			3					1	
			1					1	
1620	光 海 君 (포 1점)		1					1	
1640	求 禮 孫 (포 2점)		1					11	
1660	文 英 夫 人 (포 1점)							1	
1670	興 麗 朴 (포 1점)							1	
1670	洪 克 加 (포 2점)							1	
								1	
1680	李 端 夏 (포 1점)							1	
1690	金 德 遠 (포 19점 철릭 1 점)								



안섶의 달림도 겹섶과 같이 混用되어 달렸으며 1690年代에 이르러서는 옷깃이 옷섶 밖으로 나이나 달린 경우가 主를 이루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안깃의 달림 형태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옷섶의 크기는 겹섶 안섶 모두 작아졌으며 저고리 길이도 짧아졌다.

3. 袍

겹깃의 모양은 목판깃, 칼깃의 形態가 混用되었고 1700年代에 이르러서는 겹깃궁둥이가 많이 둥글러졌다.

안깃의 모양은 목판깃을 이루고 있다.

옷깃의 넓이는 큰 변화없이 10cm 内外를 이루었고 고대길이는 짧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옷깃길어도 短小化되었으며 겹깃과 안깃길이의와의 비율은 1560年~1700年代에서는 겹깃이 길어서 여밈이 매우 깊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1900年代에 이르러서는 전체 옷깃길이가 짧아지면서 안깃길이가 겹깃 길이보다 길어졌다.

겹섶이 달린 위치는 1400年~1700年사이에는 옷깃이 옷섶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경우와 일부만이 들어간 경우를 반복하면서 1700年代에 이르러서는 옷깃이 옷섶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안섶이 달린 위치는 1600年代에는 옷깃이 옷섶 안으로 들어가 달렸으며 1680年代까지는 옷깃이 안으로 들어간 경우와 밖으로 나간 경우가 같이 있었다. 以後 1700年代에 이르러서는 옷깃이 옷섶 밖으로 나아갔다.

옷섶의 크기는 겹섶 안섶 모두 작아졌다.

옷섶길이의 안길이와 밖길이의와의 차이를 통해서 옷섶과 도련이 이루는 곡선이 완만한가 급격한 경사의 곡선을 이루고 있는가를 관찰하였으나 안과밖의 길이 차이가 크다고해서 반드시 급격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것만은 아니었다. 이것은 안과밖의 길이의 차이에도 영향을 받으나 서로 다른 저고자와 袍를 비교할 경우 안과 밖의 길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도 완만한 곡선을 이룰 때가 있다. 이는 서로 比較對象의 총길이, 전체깃길이와 옷섶선이 놓여진 곳에 따라 옷섶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의 길이의 차이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급격한 곡선을 이룬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으며 오히려 길이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 보다는 옷섶선과 옷깃길이의와의 관계와 더욱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또 진동과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옷의 중심선을 중심으로 하여 옷섶선이 놓여지는 위치에 따라서도 옷섶과 도련이 이루는 곡선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어 옷섶선의 달림의 위치의 변화 과정을 이研究에 사용된 자료의 정확한 관찰과 조사를 통하여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끝으로 이 論文을 쓰는데 지도하여 주신 朴京子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參考文獻〉

- 石宙善, 韓國服飾史(서울, 寶晉齋, 1971)
-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서울,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7)
- 金東旭, 李朝前期服飾研究(서울, 韓國服飾院, 1963)
- 李如星, 朝鮮服飾考(서울, 白楊堂, 1947)
- 李京子, 女子저고리小考(梨花女子大學校碩士學位請求論文, 1970)
- 李京子, 高句麗 古墳壁畫의 服飾研究, 1976.
- 李京子, 木偶像의 服飾考察(서울, 服飾第二號, 1978)
- 金美子, 무엿고 옆트인 袍에 대한 研究(서울여자대학 논문집 제 8 호, 1979)
- 金美子, 두루마기(周衣)의 變遷에 관한 研究(서울여대농촌개발연구총서 제 5 별책, 1980)
- 金美子, 民庶 便服袍의 옷깃에 대한 研究(대한 가정학회지 제14권1호 1976)
- 金玉姬, 우리나라 女服形成에 對한 研究(誠信女大大學院碩士學位請求論文, 1974)
- 金東旭, 高福男, 重要民俗資料調查報告書63호(1978) 75호(1976)
- 崔世珍, 훈몽자회, 1527.
- 文化財管理局, 朝鮮時代宮中服飾(서울,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1)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古代編)(東京, 文化出版局, 1979)

<ABSTRACT>

A Study On Changes in the Shape of Collars
and Necks of Korean Clothing

By Paik Kum Hyun

This thesis is mainly about the changes of Garment's collar(옷깃) and outer collar(옷섶) which indicate the identification of dress history. Through the observations of some reports about important folk materials and genuine objects, the author has investigated and rearranged them focusing on Yi-Dynasty. (1400—1900)

For the shape of the outer lapels(겉깃) of Korean Jacket(저고리) were used together Squar-Tray-Collar(목판깃), Sharped-Collar(칼깃), and Dang ko-Collar(당코깃) and coming to the end of inner lapels(안깃) formed squar-tray-collar.

Squar-tray-collar and sharped-collar were mainly used together for the shape of the outer lapels of Korean overcoat(포). Dang ko-collar was seen only in two overcoat. Coming to the 18th centry, the outer lapels became round-edged like those of jackets, while the inner lapels formed squar-tray-collar.

In the process of positional changes of the collar and outer collar of Korean jacket and overcoat, the outer lapels positioned outside the outer collar, or a part of width of collar's positioned upon the outer collar, or the whole outer lapels positioned inside the outer collar. And through these changes the current position of the outer lapels became settled in the end of the 19th centry. But the inner lapels did not undergo many changes compared with the outer ones, and their position was mainly outside the outer collar like those of current lapels.

And the garment's collar and outer collar of jacket and overcoat became small while the width and length of breast-tie(고름) became large.